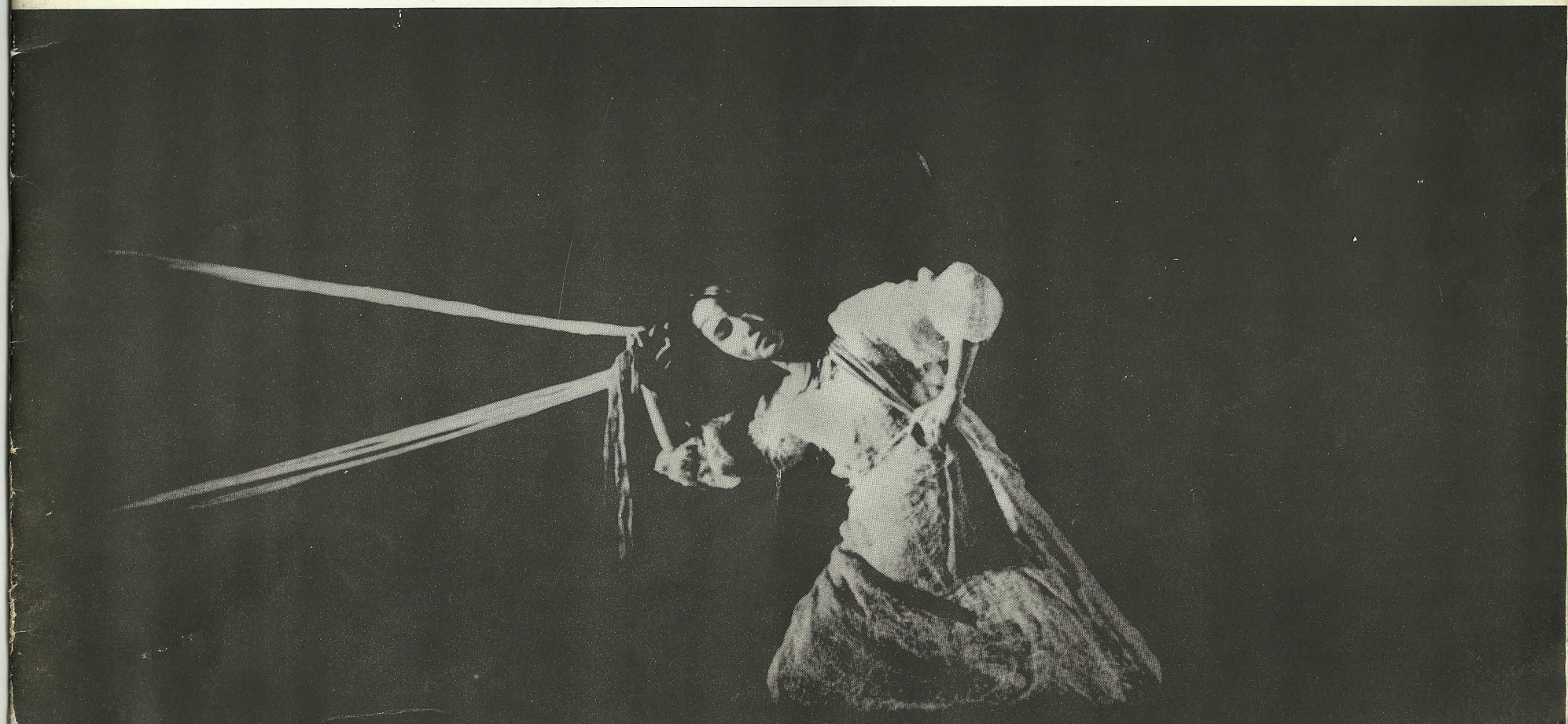
최은희 춤

CHOI, EUN-HEE DANCE AN PERFORMANCE

'89. 4. 21(금) 오후7:00
22(토) 오후5:00
경성대학교콘서트 홀

주최 / ㈜국제신문



崔恩姬는 1955년 인천生으로이화여대, 동 교육대학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국립국악원에서 민족문화, 궁중무용에 대한 체계를 쌓았으며 또한 굿학회 창립회원으로 무속에도관심을 갖고 있다. 창무회 창단 회원이기도한 그는 전통과 현대와의 접목에 창작의 축을 두고 1982년 첫 개인발표회인 '夏至祭'를 갖고 그해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넋들임'을 안무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85, '87년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개인발표회를 가졌으며, 86년 3월「창무 큰춤판」(서울)에' 제웅맞이'로 참가. 한국무용제전 1회(85년), 2회(86년), 3회(87년) 참가 및 4회(88년 5월) 참가하였고, 88년 10월 창무춤터기획의 '춤과 미술, 시의만남'에 '외출하다'를 발표, 이어 12월에는 소극장춤 BEST 5 초대전 공연에 참가했다. 88 서울올림픽대회 요트경기 개회식 행사 '파도를 넘어서' 안무를 맡기도 했다. 그 외 주요안무작품으로는 '늪', '지난 겨울', '춤108', '허재비의 꿈' 등 소품 다수가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을 거치고 현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 문(波紋)

- 음악// 안일웅 / 土取利行 / 장덕산
- 무용// 신은주 / 하연화 / 주은선 / 박은실 / 강선미리 / 강연욱 / 구영희 / 김순례 / 오은주 윤미진 / 진영자 / 황지영 / 김창명 / 성동헌

■매듭풀이

- 음악// 신혜영
- 무용// 정미숙 / 안줄이 / 이경미 / 김창명 / 전현철 /**최은희**

□ 휴 식 □
Intermission

■누이여, 나의 누이여 !

- 음악// 황장수
- 무용// 안줄이 / 이경미 / 서상순 / 신은주 / 하연화 / 박은실 / 김창명 / 성동헌 / 전현철 배형섭 /**최은희**

■staff

안무·구성// 최은희 의상/최은실, 고려사 미술/정진윤 조명/김장태 음향/오인종 무대감독/윤보경

■파 문(波紋)

막막은해도 내가 여기 이승에 있듯이 확실한 서러움 꼬집어 그 빛깔이며 모양새를 드러낼 수는 없다해도 내 속에 분명히 자리잡고 있는것.
내 피 처럼 내 살 처럼 내 몸의 일부이듯이 내 속에 있는 서러움의 느낌. 다른데서가 아니고 산과 들 그리고 바다며 강물 앞에서 공연히라고 해볼 만큼 절로 피고 이는 느낌의 바쳐진 詩들.

—김열규의 "恨脈怨流"에서 —

—이 작품은 전 3장으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 1장과 2장은 수면에 이는 연속된 물결무늬 모양을 형상화하였고, 3장은 치열한 삶 속에서 분출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心像을 형상화한 것으로 음악도 각 막의 주제에 맞도록 달리하여 사용하였음.—

■매듭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부딪히는 '현대'라는 굴레는 좌절, 번민, 고뇌 등의 응어리들을 만들어낸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의 칠흙 같은 어둠…….
이러한 응어리를 우리 가까이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민간신앙의 하나인 씻김굿 중의 한 과정인 고풀이 형식을 통하여 풀어내고 다시금 오늘의 삶을 충전시킬 살아 솟구치는 몸짓의 제의로 형상화한 것임.

「최은희의 춤은 그 정신적 거점을 전통적 민족정서에 두고 있다. 그러나 표현수단에서 굳이 전통성을 고집하지 않은 것은 보다 자유롭기를 바라는 생각과 나름대로의 현대적 시각을 강조하려는 심산에서인 듯하다. 점차 자신의 방법론을 분명한 모습으로 경작해 가고 있으며 개성적 발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파문〉은 살아 숨쉬는 물결이 환경 따라 변화롭게 조성하는 파문과 영겁을 구비돌아 오가는 끈질긴 민족기맥 등에 초점을 맞춘 상징적인 표현이 인상적이었으며 전의 작품들에서 보여 준 지나친 내면 집착에 비하면 감각적으로도 영롱함을 보였다.

1987. 5 〈부산일보〉
강이문(무용평론가)

〈파 문〉

■누이여, 나의 누이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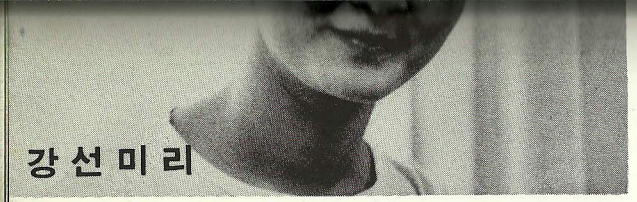
누이의 삶은 절망하는 엄숙으로 빚어지고 삶의 생존을 위한 그 분명한 당위성과 함께 미소를 배운다.
건장한 바람이 불면 오색찬연한 휘장으로 감싸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누이는 눈뜬다.
유리벽 속에서, 어두운 방안에서 점멸되는 일상의 틀을 깨고 내일, 그 삶의 환한 햇살을 꿈꾸면서…….

—한반도의 남단 항구 도시.
부산은 해상 밖의 유입문화가 정확한 검증없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여기서 기생하는 향락산업(현지처, 관광접객업소, 윤락가)이라는 상황 속에 고립되어 있는 여성을 위한 제도는 장치되어져 있지 않고 그들 개인이 갖고있는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을만한 사회적인 발언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그들에게도 꿈과 사랑과 현실이 함께 공존한다.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을 여기다 옮겨 현실에 오염되어 가는 고갈된 삶을 직업여성의 애환으로 그 주된 모티브를 형상화한 것이다.—

〈매듭풀이〉

崔恩姬의 『매듭풀이』는 고행을 춤으로 승화시킨다. 은은한 코러스가 들리는 이 6인무는 칠흙 같은 어둠을 헤쳐나가는 참회의 뜻이 담겨있다. 최은희의 춤 정신이 그러하듯 매우 매섭고 알찬 이 작품에서 그는 머리에 상장(喪章)을 표시하는 흰 리번을 달고 맨발은 검은 천으로 감았다.
그들이 지나가는 어둠의 터널은 어디인가? 그들 다섯 명 단원들 가슴을 묶은 붉은 천이 마치 피 처럼 풀려무대 바닥을 흐를때 최은희라는 이 시대 고행자의 가냘픈 몸에서는 푸른 인광이 번쩍인다.

1988년 7월호 "춤"
김영태(무용 평론가)


강 선 미 리

강 연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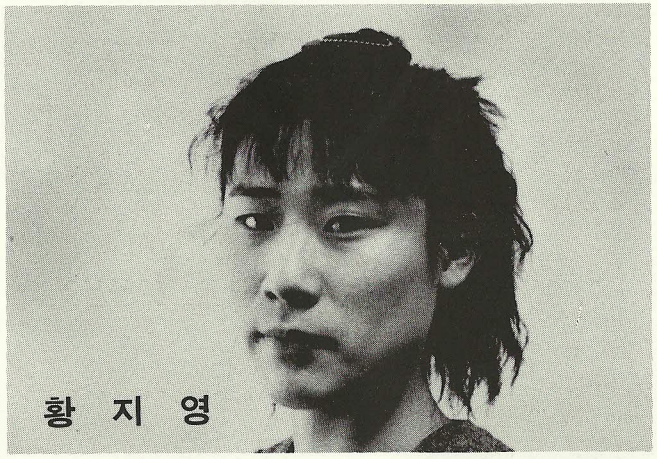
구 영 희

김 순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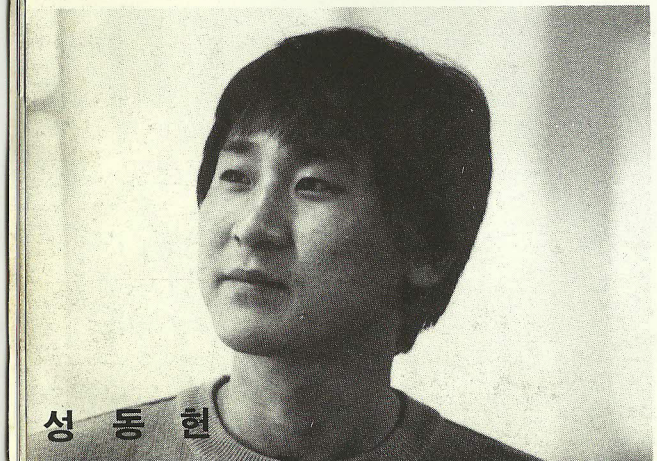
오 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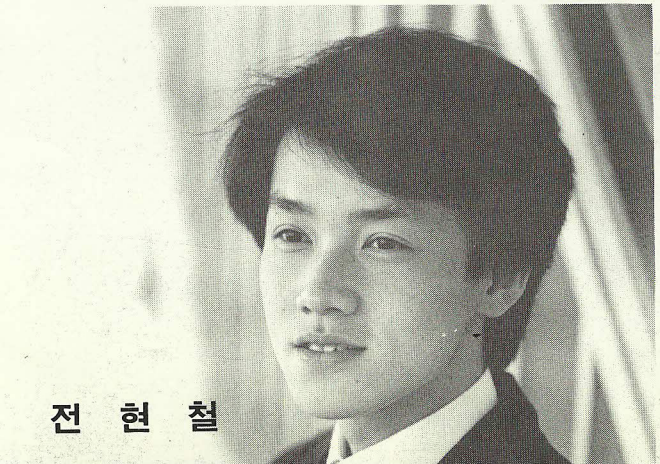
윤 미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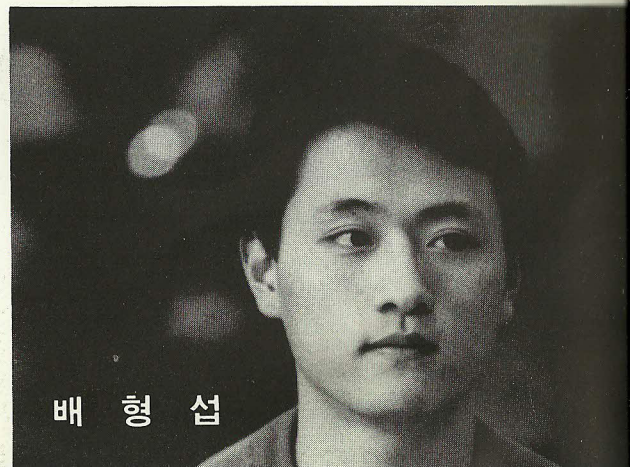
진 영 자


황 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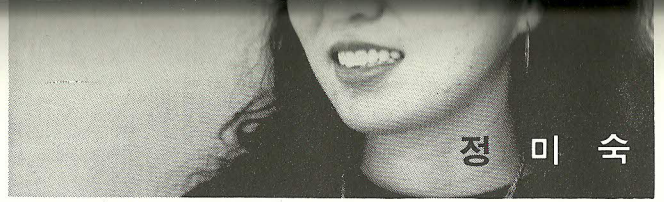
김 창 명


성 동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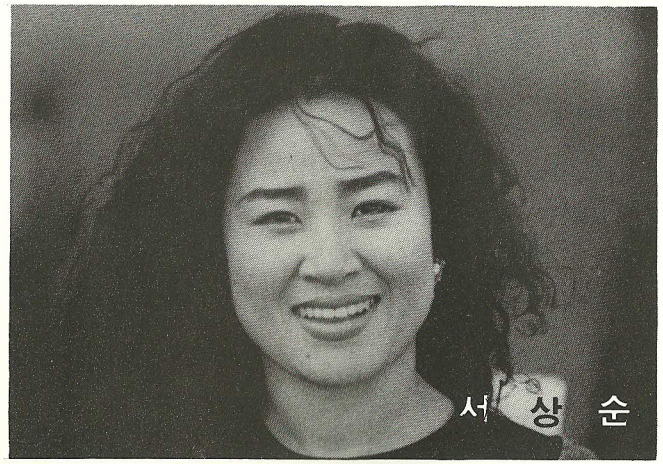

전 현 철


배 형 섭

출 연


정 미 숙

안 즐 이


서 상 순

이 경 미

신 은 주

하 연 화

주 은 선

박 은 실